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남희

1. 서론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교육 실태
 4. 결론 및 정책 제언
-

요약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입각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실내 안전사고 연평균 횟수는 1.09회이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보육실(67.6%)이었으며 안전사고의 유형은 타박상(64.2%)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영유아 개인적인 특성(69.1%), 영유아의 부주의(25.5%)가 대부분이었음.
- 실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놀이시설(59.9%)이었고, 시설물은 미끄럼틀(22.3%)이었으며 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56.6%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기관유형, 지역, 정원아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관 앞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50.4%)가 그렇지 않는 경우(49.6%)보다 조금 더 많았음.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관리 영역을 다루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안전 관련 평가 체제 및 법적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1 서론

- 최근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주창함.
 - 어린이 활동공간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설비 기준 뿐 아니라 통합 기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영유아의 환경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노력 중임.

* 본 내용은 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2015)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 임.

- 무상보육 이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기관은 단순한 교육과 보육 공간을 넘어 생활공간이며, 이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균이용 시간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7.9시간, 유치원은 7.2시간으로 나타남(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 현재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매뉴얼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출처가 다양한 정보와 기준이 다른 평가에 의해 안전관리와 안전 교육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육아지원기관의 안전지침이 있더라도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측면의 연구와 대응이 미비함.
-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입각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

가. 기관의 실내 안전관리 실태

- 실내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해 98.1%, 안전사고의 예방과 지도 수준에 대해 98.0%의 원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함.
- 실내 안전사고 연평균 횟수는 1.09회이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보육실(67.6%)이었음.

〈표 1〉 실내환경 중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67.6	31.5	27.4	13.2	10.4	7.2	0.6	0.8
기관유형								
유치원	68.3	29.6	39.2	9.5	12.7	6.7	0.9	0.4
어린이집	67.1	33.0	18.3	16.0	8.5	7.7	0.4	1.1
지역								
대도시	74.3	23.3	24.7	19.2	13.5	7.3	0.5	1.0
중소도시	62.3	38.0	27.4	9.7	8.7	5.9	0.4	0.6
군지역	72.1	26.6	42.4	6.4	6.0	16.9	2.8	1.1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① 교실/보육실, ② 강당(유학실, 실내놀이터), ③ 복도 또는 계단, ④ 현관문 또는 출입구, ⑤ 화장실 또는 욕실, ⑥ 문 또는 창문, ⑦ 조리실 또는 식당, ⑧ 기타(베란다 등)

□ 실내 안전사고의 유형은 타박상 64.2%, 할퓌거나 물림 43.8%, 찰과상과 자상 43.1%, 끼임 9.6% 순이었음

〈표 2〉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

단위: %

구분	타박상	할킴·물림	찰과상·자상	끼임	치아손상	골절·탈구·염좌	이물질흡입	출혈	추락·낙상	화상	기타
전체	64.2	43.8	43.1	9.6	6.0	5.4	1.5	1.4	1.0	1.0	0.4
기관유형											
유치원	72.2	24.4	58.5	6.7	10.7	6.2	3.0	2.1	0.0	0.5	0.0
어린이집	58.0	58.7	31.1	11.8	2.4	4.9	0.4	0.8	1.8	1.3	0.8
지역											
대도시	59.4	45.0	46.7	12.0	5.5	4.5	2.7	1.1	1.0	0.0	0.9
중소도시	66.9	43.2	39.4	8.0	6.8	5.3	0.7	1.7	1.1	1.7	0.0
군지역	69.6	41.3	51.5	8.9	2.8	11.4	1.5	1.1	0.8	0.2	1.0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기타는 넘어짐, 어린이 자체 질병 등임.

- 안전사고 시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기관(94.5%)이 대부분이었고, 응급의료기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7.7%였음. 응급의료기관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8.4%였음.
- 실내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92.3~98.8%)였음. 주로 교사가 담당자였으나 조리실/식당은 별도 인력이 담당(47.8%)하는 경우가 응답이 많았음.

〈표 3〉 실내환경 안전관리 담당자 유무/주 담당자

단위: %(명)

구분	담당자 유무		주 담당자				계(수)
	있음	없음	교사 중 담당자	원장	원감/주임	별도 인력	
교실/보육실	98.8	1.2	80.4	10.1	8.8	0.6	100.0(988)
화장실 또는 욕실	95.7	4.3	81.0	8.1	4.3	6.6	100.0(957)
조리실 또는 식당	97.0	3.0	24.1	24.2	3.9	47.8	100.0(970)
실내놀이터 또는 유희실	92.3	7.7	77.7	10.3	9.3	2.7	100.0(923)
자료실 또는 기타 공간	92.7	7.3	76.7	7.8	14.3	1.3	100.0(927)

주: 별도 인력은 교사 외 별도의 인력, 교육보조원, 조리사/조리원, 영양사, 청소원, 관리인, 안전관리 담당교사, 행정보/행정담당자, 관리과장/소장, 하모니자원봉사자 등임.

- 실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62.0%였으며,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나. 기관의 실외 안전관리 실태

- 원장은 기관의 실외놀이터 시설 및 설비의 안전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한 편(48.6%), 매우 안전(32.6%)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음 16.9%, 위험요소가 매우 많음 1.9%의 의견임.
 -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는 인근 놀이터(51.5%), 옥외 놀이터(42.0%), 그 외 옥상 놀이터였음.
- 실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놀이시설(59.9%)이었음

〈표 4〉 실외환경 중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

단위: %(명)

구분	놀이 시설	바닥	모래 영역	정문 또는 출입구	화단	주차장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59.9	26.9	5.3	3.1	2.0	0.5	2.3	100.0(591)	
기관유형									
유치원	63.4	23.7	4.7	3.7	0.6	0.1	3.8	100.0(250)	13.59(6)*
어린이집	57.4	29.2	5.7	2.7	3.0	0.8	1.2	100.0(340)	

* $p < .05$.

주: 기타는 놀이터 주변 시멘트 바닥, 이동통로, 산책로, 실외계단, 마당 등임.

□ 실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미끄럼틀(22.3%)이었음.

〈표 5〉 실외 놀이시설물 중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설물

단위: %(명)

구분	미끄럼틀	오를 수 있는 기구	그네	시소	바퀴 달린 놀잇감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22.3	22.1	11.6	2.1	7.1	1.7	33.0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23.2	25.1	11.5	1.3	4.9	1.7	32.4	100.0(400)	14.68(14)
어린이집	21.7	20.2	11.6	2.7	8.5	1.8	33.4	100.0(600)	
지역									
대도시	25.3	22.5	8.4	1.3	5.8	2.5	34.2	100.0(356)	
중소도시	19.5	23.2	12.6	2.6	8.6	1.4	32.1	100.0(558)	22.07(10)*
군지역	28.4	14.1	17.7	2.8	2.6	0.3	34.2	100.0(86)	

□ 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없음이 58.6%로 응답의 절반이 넘음.

□ 놀이시설 정기 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83.6%로 많았으며, 놀이시설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66.3%였음.

□ 최근 1년간 실외 시설물 교체 및 보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3%

- 교체 및 보수 이유는 안전상 위험(43.9%)이 가장 높았고 노후로 인해(29.2%), 범개정에 따라(12.2%) 순이었음.

□ 원장의 76.9%는 안전점검 실시대장/놀이기구 관리대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 기관의 교통안전 관리 실태

1) 통학차량 운행 현황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56.6%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기관유형, 지역, 정원아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가 35.4%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 기관이라서(29.5%)'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29.3%)'가 비슷한 비율이었음

〈표 6〉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국공립 기관이라서	영유아 안전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기타	계(수)	$X^2(df)$
전체	35.4	29.5	29.3	3.7	2.1	100.0(434)	
기관유형							
유치원	12.9	84.6	1.6	0.9	0.0	100.0(124)	257.05(7)***
어린이집	44.4	7.5	40.3	4.8	3.0	100.0(310)	

*** $p < .001$

□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고 자가 소유가 대부분인 75.7%이며,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68.6%)하는 경우가 68.6%임.

〈표 7〉 차량_소유형태/운전자

단위: %(명)

구분	소유형태				계(수)	운전자				계(수)
	소유	지입	전세버스	기타		원장	교사	운전기사	기타	
차량1	75.7	15.8	7.0	1.5	100.0(566)	27.3	2.9	68.6	1.2	100.0(566)
차량2	52.2	31.2	14.4	2.2	100.0(201)	4.5	2.6	90.2	2.7	100.0(201)
차량3	36.9	36.8	24.0	2.3	100.0(78)	0.3	0.3	98.7	0.7	100.0(78)
차량4	29.5	42.0	22.4	6.1	100.0(29)	0.0	2.5	97.5	0.0	100.0(29)

□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영아용 보호장구’를 구비한 경우는 91.8%로 나타남. 설립 유형, 지역, 정원아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응답 결과가 나옴.

2) 기관 주변의 교통안전 현황

□ 기관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은 ‘없다’가 99.4%로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된 환경으로 추정되나, 기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매우 위험과 약간 위험 합침)는 인식이 65.1%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보다 높음.

□ 기관 앞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50.4%)가 그렇지 않는 경우(49.6%)보다 조금 더 많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의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경우가 적지 않음

- 유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85.6%로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지정된 경우가 26.9%에 불과함

〈표 8〉 기관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50.4	49.6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85.6	14.4	100.0(400)	328.55(1)***
어린이집	26.9	73.1	100.0(600)	

*** $p < .001$.

□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어린이집 정원 100인 미만)가 58.8%로 가장 많았음.

-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예외구역이라 어린이집이 교통 환경 측면에서 유치원에 비해 취약함.

- 기타 의견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직장 내 설치되어 있어서’ 등임.

라. 관리의 어려움

- 실내 안전관리에 있어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34.9%)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관리(25.2%), 전담 인력의 부재(16.3%), 전문지식의 부족(7.0%) 등의 순이었음.

〈표 9〉 실내환경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X ² (df)
전체	34.9	25.2	16.3	7.0	2.8	13.9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29.3	18.2	27.5	8.7	2.8	13.6	100.0(400)	77.84(10)***
어린이집	38.7	29.8	8.8	5.8	2.8	14.1	100.0(600)	

*** $p < .001$.

주: ①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 ②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관리, ③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 지식의 부족, 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로 점검, ⑥ 기타(업무량 과다, 원아 수에 비해 공간 부족, 파손에 의한 보수비용, 잘 모름, 해당사항 없음 등)

- 실외 안전관리에 있어도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43.2%)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며, 놀이시설물 및 놀잇감 관리(20.3%), 영유아, 교사, 부모의 안전 교육(3.5%) 등의 순이었음.

〈표 10〉 실외환경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 ² (df)
전체	43.2	20.3	3.5	1.7	1.0	1.6	28.7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48.0	26.7	3.8	1.4	1.7	0.4	18.0	100.0(400)	55.59(11)***
어린이집	40.0	16.1	3.2	2.0	0.5	2.3	35.8	100.0(600)	

*** $p < .001$.

주: ①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 ② 놀이시설물 및 놀잇감 관리, ③ 영유아, 교사, 부모의 안전 교육, ④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로 안전 점검, ⑤ 안전을 위한 비상체계 구축, ⑥ 기타(아파트 놀이터 이용, 보수비용, 동물배설물, 관리 인력 등), ⑦ 어려움 없음

- 실내환경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출입문 및 교실/보육실내 CCTV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복도 및 계단 안전장치(22.3%), 출입문 및 창문의 안전장치(21.4%), 화장실 및 목욕실의 미끄럼 방지장치(18.0%), 기타(3.2%) 순이었음.

〈표 11〉 실내환경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수)	X ² (df)
전체	35.1	22.3	21.4	18.0	3.2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31.7	26.9	17.8	21.5	2.0	100.0(400)	20.42(4)***
어린이집	37.3	19.2	23.9	15.7	3.9	100.0(600)	
지역							
대도시	36.5	26.1	18.4	17.0	2.0	100.0(356)	18.60(8)*
중소도시	35.7	18.8	23.7	17.7	4.1	100.0(558)	
군지역	24.8	29.3	19.2	24.7	2.0	100.0(86)	

* p<.05, *** p<.001

주: ① 출입문 및 교실/보육실 내 CCTV, ② 복도 및 계단 안전장치, ③ 출입문 및 창문의 안전장치, ④ 화장실 및 목욕실의 미끄럼 방지장치, ⑤ 기타(교실내부에 화장실 설치, 출입자 파악을 위한 알람벨 설치, 책상, 의자 보호대, 창문 방충망 설치, 없다 등)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교육 실태

가. 안전교육 실태

1) 영역별 안전교육과 주체

□ 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대다수(85.4%)가 오프라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은 14.6%인 것으로 나타남.

□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관 자체교육(45.9%), 보수교육(29.2%), 그 외 교육(22.3%), 승급교육(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표 12〉 실내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방법 및 교육형태

단위: %(명)

구분	교육방법		교육형태			계(수)	X ² (df)
	오프라인	온라인	보수교육	승급교육	기관 자체교육		
전체	85.4	14.6	29.2	2.6	45.9	22.3	100.0(994)

구분	교육방법		교육형태				계(수)	X ² (df)
	오프라인	온라인	보수교육	승급교육	기관 자체교육	그 외 교육		
기관유형								
유치원	83.7	16.3	23.0	0.7	54.0	22.3	100.0(398)	27.45(3) ^{***}
어린이집	86.5	13.5	33.4	3.9	40.5	22.3	100.0(596)	
지역								
대도시	87.4	12.6	26.1	2.7	48.7	22.5	100.0(354)	5.08(6)
중소도시	83.5	16.5	31.6	2.8	43.3	22.3	100.0(554)	
군지역	89.5	10.5	26.6	1.0	51.0	21.4	100.0(85)	

*** $p < .001$

□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 실시기관 주체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안전관리지원기관(24.7%), 육아종합지원센터(23.9%), 교육청(7.7%), 유아교육진흥원(3.7%), 사설기관/업체(1.8%), 안전공제회(1.5%) 순이었음.

〈표 13〉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 실시기관 주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 ² (df)	
전체	36.6	24.7	23.9	7.7	3.7	1.8	1.5	100.0(994)		
기관유형										
유치원	41.3	31.1	2.4	17.4	5.2	1.6	1.0	100.0(398)	229.01(6) ^{***}	
어린이집	33.5	20.5	38.3	1.2	2.8	1.9	1.7	100.0(596)		
정원										
유치원	20명 미만	43.9	32.7	0.0	17.1	4.3	1.9	0.0	100.0(45)	12.57(18)
	20명~50명 미만	35.5	33.6	4.9	15.5	6.4	1.8	2.3	100.0(107)	
	50명~100명 미만	43.5	29.5	0.8	20.7	2.7	2.7	0.0	100.0(96)	
	100명 이상	43.2	29.8	2.4	16.8	6.2	0.6	1.1	100.0(150)	
어린이집	20명 미만	30.4	17.5	43.2	2.7	3.3	0.4	2.4	100.0(198)	33.12(18) [*]
	20명~50명 미만	35.8	17.0	40.2	0.3	2.9	2.8	1.1	100.0(268)	
	50명~100명 미만	31.8	30.0	29.3	1.3	1.9	3.2	2.6	100.0(102)	
	100명 이상	40.4	41.8	17.8	0.0	0.0	0.0	0.0	100.0(27)	

* $p < .05$.

주: ① 자체적으로 실시, ② 안전관리지원기관(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교육청, ⑤ 유아교육진흥원, ⑥ 사설기관/업체, ⑦ 안전공제회

- 기관유형과 어린이집의 정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20명 미만(43.2%), 20명~50명 미만(40.2%)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 비율이 더 많았고, 100명 이상의 큰 규모의 기관은 안전관리지원기관(41.8%)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414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의 주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오프라인 교육이 86.0%로 대부분이었고, 온라인 교육은 14.0%인 것으로 나타남.
-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형태는 기관 자체교육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수교육 30.6% 등의 순이었음.
-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은 기관 자체교육(44.3%), 보수교육(34.9%) 순으로, 어린이집은 기관 자체교육(44.5%), 그 외 교육(30.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14〉 실외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방법 및 교육형태

단위: %(명)

구분	교육방법		교육형태				계(수)	X2(df)
	오프라인	온라인	보수교육	승급교육	기관 자체교육	그 외 교육		
전체	86.0	14.0	30.6	0.3	44.4	24.7	100.0(414)	
기관유형								
유치원	84.8	15.2	34.9	0.0	44.3	20.7	100.0(244)	8.15(3)*
어린이집	87.8	12.2	24.4	0.7	44.5	30.3	100.0(170)	

* $p < .05$.

-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실시기관의 주체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주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이나 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관리지원기관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체적으로 실시 33.6%, 육아종합지원센터 12.0%, 교육청 7.6% 등의 순이었으며, 사설기관/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도 3.4%가 있었음.

〈표 15〉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실시기관 주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전체	37.9	33.6	12.0	7.6	3.6	3.4	2.0	100.0(414)	
기관유형									
유치원	45.6	34.8	1.1	12.3	3.4	0.6	2.1	100.0(244)	96.01(6)***
어린이집	26.7	31.8	27.6	0.9	3.9	7.3	1.7	100.0(170)	

*** $p < .001$.

주: ① 안전관리지원기관(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② 자체적으로 실시,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교육청, ⑤ 유아교육진흥원, ⑥ 사설기관/업체, ⑦ 안전공제회

□ 영유아의 안전교육은 약 99%정도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 년 동안 약 6~8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야동학대 예방교육 등이며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함.

〈표 16〉 영유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내부실시		외부실시		계(수)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교통안전교육	99.7	0.3	74.2	25.8	100.0(1,000)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99.1	0.9	48.6	51.4	100.0(1,000)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98.6	1.4	40.5	59.5	100.0(1,000)
재난대비 안전교육	98.6	1.4	50.1	49.9	100.0(1,000)
성폭력야동학대 예방교육	99.3	0.7	57.4	42.6	100.0(1,000)

- 시청각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은 전문가의 강의도 약 60%정도 실시하고 있었음.

〈표 17〉 영유아 교육 횟수와 방법

단위: %

구분	실시횟수	시청각 교육	전문가(담당자) 강의	장소 상황별 역할극	사례분석
교통안전교육	8.52	80.9	59.8	43.7	10.8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6.81	80.3	37.9	48.0	9.2

구분	실시횟수	시청각 교육	전문가(담당자) 강의	장소 상황별 역할극	사례분석
약물오용남용예방교육	6.36	81.2	33.0	35.3	8.9
재난대비 안전교육	6.52	79.1	36.7	47.9	7.4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6.95	78.7	48.5	48.4	9.5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첫째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력 습득, 두 번째는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습득,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 형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음.

〈표 18〉 영유아 안전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수)	$X^2(df)$
전체	39.5	31.7	27.2	1.7	100.0(1,000)	
기관유형						23.19(3)***
유치원	30.4	37.4	30.4	1.8	100.0(400)	
어린이집	45.5	27.9	25.1	1.6	100.0(600)	

*** $p < .001$.

주: ①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력 습득, ②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습득, ③ 능동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 형성, ④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

□ 교직원 안전교육은 대부분 자체교육(63.9~72.1%)이었음.

- 교통안전교육과 성폭력아동학대방지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특강과 방문교육을 조금 더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9〉 교사(원장)_내부교육

단위: %

구분	자체교육	특강	방문교육	기타	없음
교통안전교육	63.9	28.1	27.5	5.6	7.2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72.1	23.8	23.8	3.7	-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71.6	19.4	19.6	5.7	-
재난대비 안전교육	72.0	22.6	23.2	5.2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65.2	33.0	32.0	6.1	-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외부교육은 37.5%~53.2% 정도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었음.

〈표 20〉 교사(원장)_외부교육

단위: %

구분	외부 전문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안전공제회	기타	없음
교통안전교육	47.8	28.9	23.3	9.8	1.9	16.2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43.6	27.7	12.1	4.4	2.1	-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37.5	22.2	9.6	4.7	2.8	-
재난대비 안전교육	43.3	21.9	11.3	5.1	3.1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53.2	32.1	13.9	5.5	1.6	-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부모교육은 약 84% 정도가 하고 있었으며,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적으로 약 6회 정도였음.

-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이 약 74~85% 정도로 많았음.

〈표 21〉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실시여부		교육내용					계(수)
	예	아니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통 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약물오용 남용 예방교육	
전체	83.5	16.5	84.8	73.9	68.8	56.3	54.2	100.0(835)
기관유형								
유치원	93.4	6.6	88.3	81.9	74.7	66.1	58.7	100.0(374)
어린이집	76.8	23.2	81.8	67.4	64.1	48.4	50.5	100.0(461)
지역								
대도시	84.6	15.4	82.5	71.9	67.1	57.6	52.9	100.0(301)
중소도시	81.6	18.4	85.1	73.0	69.8	53.9	53.6	100.0(455)
군지역	91.3	8.7	91.2	86.3	69.6	65.1	62.5	100.0(78)

- 교육 방법은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84.1%)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이용함.

〈표 22〉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와 방법

단위: %

구분	실시횟수	방법				
		안내문, 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부모 워크숍이나 설명회	특강	기타
전체	6.58	84.1	50.3	26.8	11.6	1.8
기관유형						
유치원	8.05	86.3	49.1	33.8	14.0	3.0
어린이집	5.39	82.3	51.2	21.2	9.7	0.7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나. 안전교육 어려움

□ 기관의 안전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질문한 결과,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에 대한 의견이 43.9%, 체험중심의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7%, 외부교육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16.1%, 마지막으로 신뢰로운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관유형, 지역 및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린이집에서는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유치원은 체험중심의 교육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표 23〉 기관 안전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수)	$X^2(df)$
전체	43.9	31.7	16.1	8.4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38.0	39.3	14.5	8.2	100.0(400)	18.35(3)***
어린이집	47.8	26.6	17.1	8.5	100.0(600)	
지역						
대도시	36.6	35.5	19.5	8.4	100.0(356)	16.81(6)*
중소도시	48.0	28.5	15.1	8.3	100.0(558)	
군지역	46.9	36.6	8.3	8.3	100.0(86)	

구분	①	②	③	④	계(수)	X ² (df)
정원						
20명 미만	38.7	44.8	11.1	5.3	100.0(45)	
유치원						
20명~50명 미만	37.8	33.2	17.8	11.1	100.0(108)	10.90(9)
50명~100명미만	38.3	46.1	7.1	8.5	100.0(98)	
100명 이상	37.8	37.5	18.0	6.7	100.0(150)	
어린이집						
20명 미만	51.4	25.5	18.0	5.1	100.0(200)	22.67(9)**
20명~50명 미만	51.6	23.9	15.3	9.2	100.0(270)	
50명~100명미만	37.8	33.7	15.3	13.2	100.0(102)	
100명 이상	21.2	35.6	35.3	7.9	100.0(27)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② 체험 중심의 교육 제공, ③ 대체 인력 지원(외부교육을 위한),
④ 신뢰로운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지정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관리영역별 안전관리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외 환경 관리를 주도함.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체계화 및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 제공을 위해 체크리스트 목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연간, 법령별 목록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좀 더 체계화 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례중심의 매뉴얼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상황별 지각, 인지, 수행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how-to-do 책자를 제공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안전 관리 담당자가 원장의 책임 하에 주로 교사나 간호사 및 보육교직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실과 교실에서 영유아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가운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안전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이 필요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련 평가나 점검을 받아도 시정내용의 이해와 시설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함.
- 안전관리를 지역 연계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기관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환경 관리가 필요함
 - 통학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기관일수록 기관소유의 차량보다는 지입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입차량을 선호하는 지입 차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함.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않는 기관이나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반 관광버스와 같은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유아를 위한 차량에 대한 안전규칙 및 지침 마련이 요구됨. 또한 안전장치를 갖춘 안전한 차량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제 도입을 고려함
 -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만큼 많지 않은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정원 수에 상관없이 설치 강화를 제안함.
 -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등·하원 시 보호자가 할 것을 제안함.
- 인적환경 관리를 위해 영유아와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이 필요함
 - 시설설비를 잘하고 교사와 부모가 잘 살피더라도 영유아의 특성 상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영유아의 안전 의식을 지도함.
 - 영유아와 교사 및 부모 등의 대상별, 또는 영유아의 연령별 안전의식 지도 등에 대한 체험주도적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 시간이 많지 않은 교직원들을 위해 사례중심의 전문적인 온라인 교육 확대가 요구됨.
 - 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위한 홍보와 자료 제공을 제안함.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평가체계와 법체계 통합이 필요함.
 -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처 및 지자체에 따라 평가 항목과 중요도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통일하여 일관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함.
 -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았으므로 법령 개정 시, 시행 유예기간을 넉넉하게 주고 이에 따른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금이나 컨설팅, 자문 제공 등의 지원을 제시하도록 함.

나.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 기관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필요성
 -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기관의 시설설비 구조 및 기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연계하여 어떤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한지, 해당기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절차 등을 부모와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함. 또한 교사 교육 시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안함.
- 학부모는 ‘일일안전도우미’ 활동과 안전관련 체험 및 역할극 제공을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함.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관리 영역을 다루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부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령별, 기관별 안전 기준을 정하여 현재 다양한 주체와 지표에 의해 점검이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통일하도록 함. 또한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지역별로 안전관리와 보수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 ● 참고문헌

- 도남희·이윤진·조아라·박은영(2015).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
연구소.